

남북 전쟁 스톰시킨 조희성 구세주

1981년부터 전쟁을 막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고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저마다 자신들의 교수가 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들먹이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를 거론하는 등등 정신병자 같은 사람조차 자기가 남북통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경입니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결코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다 해놓으신 일에 숨가락을 얹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들이 했다면 명백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첫번째, 1980년 북한의 남침 계획을 완벽하게 무산시켰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자 '서울의 봄'이 오면서 정국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혼란을 블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비행기 500대를 끄워 남침을 노렸지만 김일성의 최후 공격 명령이 통신장애로 불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 통신장애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두번째, 공산주의를 말살시켜 남북전쟁의 씨앗을 없앴습니다

정도령의 5대공약 중 가장 핵심적 공약은 바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74년간 계속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를 삼킨 이념입니다. 좌우 이념대립은 언제라도 지구를 멀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대결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산주의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남북전쟁 또한 3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정도령의 5대공약의 하나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세번째, 남북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조종하였습니다

북한은 유엔가입을 원하지 않다가 급작스런 변심을 하여 남한보다 앞서서 유엔가입신청을 하였고,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남북전쟁 발발을 어렵게 만든 국제정치적 제동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번째,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바뀔 수 있게 되려면 북한 최고지도자와 대화 가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도령께서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나 김 전 대통령은 구세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부표 일 새벽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당선축하 용포를 보내 구세주께서 직접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통일 노력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이자 인류의 부모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구세주의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므로 구세주께서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자 문제인 대통령을 세움으로써 천지공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세주의 뜻에 반하게 움직이면 통일이 지연될 것이며 인류 구원은 점점 늦어질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풍년이 든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흥년이 들

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쥐어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려는 구세주의 전략입니다.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해야 구세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년이 들지만 북한은 흥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신(分身)을 하여 사람 속을 둘랑거리면서 마음을 조종하지 못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구세주 자격이 있습니다.

분신(分身)으로 나타나신 조희성 구세주

조희성 구세주 살아계십니다



간증자 김종만

나는 조희성님께서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집체만 한 몸으로 나타나서 “전쟁 일으키면 죽어, 임마”라고 외친 후 쌈사라진다는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조희성님께서 집체만 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크게 야단친 실제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단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다. 나는 승리제단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21일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때 조희성님께서는 미국에 전도 차출국하셨기 때문에 한국 승리제단 본부에 앉 계셨다.

미국에 계신 조희성님 분신으로 출현

제단에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방에 누웠는데 조희성님께서 나타나셨다.

당시 나는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신으로 나타나신 조희성님께서는 내게 벼락을 치는 듯한 큰 음성으로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야지 누가 해결해줘?”라고 외치신 후 획 사라지셨다. 조희성님은 분신(分身)을 하신다 더니 정말 분신을 하신 것이다. 그 후 21일 교육기간 중 조희성님께서는 분신으로 두세 번 내 앞에 나타나셨다

가 사라지셨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 나는 조희성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김일성과 김정일이 무신론자일지라도 실제로 집체만 한 모습으로 나타난 조희성님께서 벼락을 치는 듯한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순간 사라진다면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나타나서 “전쟁 일으키면 죽는다”고 말한다면 분명 그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할 것이고, 전쟁 일으키려는 마음을 들이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자신이 살겠다고 전쟁을 일으

키는 것인데 죽을 작정을 했으면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조희성님은 사람이 아닌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으로 전지전능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당신이 육신을 벗고 분신으로 역사하는 지금도 남북전쟁을 막고 계신다.

사진에서 튀어나와 몸속으로 들어가신 조희성님

2009년 어느 날, 나는 내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방에 걸려있던 조희성님 존영에서 조희성님이 튀어나오더니 내 속으로 속 들어오셨다. 그 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천지공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은 지금의 조희성님은 야단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능력이 강해져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조희성님은 이 세상 인류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으로 만드는 구세주인 것이다.*

진짜 구세주라면 전지전능해야 합니다